

# 2015-2017 칭다오액션플랜

## 1. 서문

1.1 2015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 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류수강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 김종덕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요시이에 히로유키 일본국 문부과학성 부대신(이하 "3국"이라 한다.)이 참석하였다.

1.2 3국은 지난 두 라운드 of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가 3국의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개최 도시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3국은 새로운 회의를 계속 개최하고 역대 회의 정신을 계승하며, 문화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결의한다.

1.3 3국은 역대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구체화하고 향후 3년간 한·중·일 3국 간 문화 분야의 교류와 대화를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이 액션플랜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통과시킨다.

## 2.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문화교류의 심화와 발전

2.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선정과 관련 문화사업의 개최는 3국의 지방도시가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선도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새로운 채널을 개척하였으며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였다.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계속 선정하기로 합의한다.

2.2 3국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이래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은 확실히 심화되고 있다. 3국은 향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한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지지하며, 이를 통한 3국 도시 간의 소통과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교류 실현에 동의한다.

2.3 3국은 중국 닝보시, 대한민국 제주도, 일본 나라시를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며, 2014년, 2015년 및 2016년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도시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2.4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가 본국 및 동아시아 문화에서 우수한 대표성을 지니며, 독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국은 도시들의 자발적인 대외교류를 장려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들의 국제교류, 특히 아세안문화도시와의 교류를 지지하고 촉진한다. 3국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문화도시의

발전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아시아와 유럽도시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다문화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가 도시의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명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 **3.“한·중·일 예술제”**

3.1 3 국은 한·중·일 예술제가 3 국의 오랜 전통과 현대의 창의적인 고전문화예술콘텐츠를 대표한다는 것을 재차 표명하고, 아울러 기존에 개최된 3 회의 한·중·일 예술제가 아시아문화 공동의식을 심화시키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3.2 3 국은 『상하이 액션플랜』중 ‘한·중·일 예술제’역외 개최와 관련하여, 한·중·일 문화교류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의 한·중·일 문화협력의 성과를 표출하고 3 국 문화의 공동체 의식을 한층 더 응집해야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였다. 3 국은 역외에서의 ‘한·중·일 예술제 개최’가능성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에 동의한다.

### **4. 문화산업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4.1 3 국은 21 세기에 진입한 이래, 국민들의 수요가 다차원화·다양화됨에 따라 문화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4.2 3 국은 문화산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발전의 근간인 저작권보호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4.3 3 국은 인터넷 등 새로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흥업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3 국의 문화산업 협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3 국 호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 **5. 문화예술분야 및 문화기구 간 교류**

5.1 3 국은 문화서비스시스템이 전 국민의 문화예술 창작과 감상 및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의 기초이자, 문화융성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전제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5.2 3 국은 문화서비스분야에서 교류와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학습하여 문화가 국민의 생활에 스며들고 핵심 가치관과 공동의 정서를 육성하여 사회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길 희망한다.

5.3 3 국은 한·중·일 국립박물관 간 공동연합전시 관련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

5.4 3 국은 3 국 간의 인문교류 및 문화교류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3 국 문화기관 간의 더 많은 대화 및 교류협력기제의 구축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 **6.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

6.1 3 국이 경제고속발전 속에서도 계승해온 풍부한 유·무형문화유산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따라서 3 국은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문화유산 보호를 병행하며 자연재해 극복의 경험을 발휘하여 세계문화유산계승과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에 의견이 같이한다.

6.2 3 국은 무형문화유산이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以人爲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대로 전승되는 전통문화형식으로 인류의 진귀한 자산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6.3 3 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면서 부단히 혁신하여 문화다양성을 촉진하고 인류의 창의성을 북돋운다는 것에 동의한다.

6.4 3 국은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각 국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 훈련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지지한다.

## **7. 3 국 청소년 간 교류 고무 및 지지**

7.1 3 국은 청소년들이 미래 3 국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이며 3 국 청소년교류 강화와 추진이 3 국의 선린우호 정신의 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

7.2 3 국은 3 국 청소년 간의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해 기회를 마련하고 지혜를 모으는 등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중·일 청소년의 문화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무하고 지지할 것에 동의한다.

## 8. 문화의 힘으로 사회문제 해결

8.1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람들 간의 더 많은 소통과 위로가 필요하다. 문화교류는 사람들 간의 영혼을 이어주는 유대이며, 문화적 역량은 사물의 내재적 힘으로 나타나며 끊임없는 축적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방출되는 무형의 원동력이다.

8.2 3 국은 문화 역량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형성시키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 9. 기타사항

9.1 3 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 동아시아문화교류사절단 등 역대 장관회의의 성과가 한·중·일 3 국의 문화교류 심화 및 실질적인 협력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앞으로도 위의 성과들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9.2 3 국은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장애인올림픽 및 2022 년 북경동계올림픽·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공동 협력하여 세계인에 매력 넘치는 동아시아문화를 보여준다는 것에 동의한다.

9.3 3 국은 2016 년 제 8 회 한·중·일문화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결정한다.

본 실행계획은 2015 년 12 월 20 일 중국 칭다오에서 체결한다. 본문은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작성하고 각 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中日韩文化部长会议——青岛 行动计划 ( 2015 年至 2017 年 )

## 1. 序言

1.1 2015 年 12 月 19 日至 20 日，第七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在中国·青岛召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部长雒树刚、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长官金钟德和日本国文部科学副大臣义家弘介（以下简称“三方”）出席会议。

1.2 三方一致认为前两轮中日韩文化部长会议的举办，为深化三国文化交流与合作发挥了积极且重要的作用，为城市与人民带来了切切实实的利益，三方决意继续召开新一轮会议，秉承并发扬历届会议精神，以文兴城、以文惠民。

1.3 为落实历次会议成果，规划今后 3 年中日韩

三国在文化领域的交流对话，推动务实合作，三方共同制定并一致通过本行动计划。

## **2.通过东亚文化之都深化和发展文化交流**

2.1 东亚文化之都的评选和相关文化活动的开展，有力地推动了三国地方城市参与国际文化交流、开展国际文化合作的积极性，也为东亚文化交流开辟了新的渠道、注入了新的活力。三方一致同意继续开展东亚文化之都评选活动。

2.2 三国东亚文化之都活动开展以来，城市间文化交流与合作正在切实深化。三方认为为促进今后东亚文化之都的合作，支持东亚文化之都城市间形成联盟，实现长期有效的交流非常重要。

2.3 三方决定评选中国宁波市、韩国济州道、日本奈良市为 2016 年“东亚文化之都”。期待 2014 年、

2015 年及 2016 年“东亚文化之都”城市间开展活跃的交流。

2.4 三方一致认为东亚文化之都是本国乃至东亚文化的优秀代表，有其独特性。三方愿意在鼓励城市自觉自发开展对外交流的同时，支持并推动东亚文化之都开展国际性交流，特别是与东盟文化城市的交流。三方认为做好“东亚文化之都”建设工作，应积极借鉴欧洲文化之都的发展经验，推动亚欧城市之间开展交流合作，搭建跨文化交流平台，更好地发挥文化在城市建设与发展中的重要影响，推动东西方不同文明的交流与碰撞。

### **3. 中日韩艺术节**

3.1 三方重申“中日韩艺术节”代表着三国深厚传统与现代创新的经典文化艺术内容，并一致认为已举

办的三届“中日韩艺术节”为深化亚洲文化共识，加强亚洲文化理解发挥了重要积极作用。

3.2 三方注意到《上海行动计划》中在域外开展“中日韩艺术节”的表述，为扩大中日韩文化交流的国际影响，在更广阔范围展示中日韩文化合作积极成果，进一步凝聚三国文化共识，三方同意继续就在域外举办中日韩艺术节的可能性进行讨论，待各种条件成熟后，在合适的时机推动举办。

#### **4.进一步加强文化产业等方面的交流与合作**

4.1 三方一致认为进入新世纪以来，人民群众多层次、多样化需求日益增长，大力发展文化产业已成为普遍共识，受到社会各界的高度关注。

4.2 三方一致同意共同致力于加强文化产业交流与合作，积极采取支持文化产业发展的政策，保护文

化产业发展的基础-著作权。

4.3 三方愿意加强依托互联网等新科技的新兴业态的交流与合作,推动三国文化产业合作不断升级,构筑三国互利合作新亮点。

## 5. 推动公共文化服务领域及文化机构间交流

5.1 三方意识到公共文化服务体系能丰富所有人参与文化艺术创作与鉴赏体验的机会,是富足社会的基础,是促进文化繁荣,构建和谐社会的前提。

5.2 三方愿意在公共文化服务领域加强交流对话、互学互鉴,使文化融入公民生活,激发社会活力。

5.3 三方欢迎中日韩三国国家博物馆间就开展共同联合展览加强协同合作。

5.4 三方将支持和鼓励三国更多的公共文化机构之间建立对话和交流合作机制,为三国间的人文交流

和文化交流注入活力。

## 6. 深化文化遗产保护与传承

6.1 中日韩三国虽然经历了经济快速发展，但三国至今仍然传承了丰富的物质、非物质文化遗产，这些物质、非物质文化遗产是人类共有财富。三方一致同意要兼顾经济增长和文化遗产保护，要发挥战胜自然灾害的经验，为传承和保护世界文化遗产做出积极贡献。

6.2 三方一致认为非物质文化遗产是以人为本的活态文化遗产，是与人民生活密切相关、世代相承的传统文化表现形式，是人类珍贵的财富。

6.3 三方一致同意在非遗保护与传承方面开展交流与合作，使非遗随着新环境变化具备历史感与认同感，不断得到创新，从而促进文化多样性和激发人类

的创造力。

6.4 三方保持密切沟通和协调，共同支持各自的联合国教科文组织亚太地区非物质文化遗产二类中心在研究、培训和信息网络等方面开展工作。

## **7.鼓励和支持三国青少年间交流**

7.1 三方认识到青少年是未来三国对话与合作的主角，加强和推进三国青少年交流，有利于三国睦邻友好的精神传承与发展。

7.2 三方一致同意将共同努力为加深三国青少年间的沟通与理解创造机会、贡献智慧，并将积极鼓励和支持开展中日韩青少年的文化交流活动。

## **8. 通过文化力量解决社会问题**

8.1 当今社会，人口老龄化、环境污染等社会问

题日益显著，人与人之间需要更多沟通与安慰。文化交流是连接人与人心灵的纽带，文化的力量既是潜移默化地作用于事物的内在力量，也是不断积累并释放正能量的无形动力。

8.2 三方一致同意，将文化的力量广泛运用于多元的社会问题，在更深刻层面和更广泛范围形成积极健康向上的良好和谐的文化氛围是很重要的。

## **9.其他事宜**

9.1 三方一致认为，东亚文化之都、中日韩艺术节、中日韩文化艺术教育论坛、东亚文化交流使等历届部长会议成果为深化中日韩三国文化交流，推动务实合作发挥了重要作用，同意将继续实施以上成果。

9.2 三方同意以 2018 年韩国平昌冬奥会和冬残奥会、2020 年日本东京奥运会和残奥会以及 2022 年

中国北京冬奥会和冬残奥会为契机而共同合作，向世界人民展示充满魅力的东亚文化。

9.3 三方决定于 2016 年在韩国举办第八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

本行动计划于 2015 年 12 月 20 日在中国·青岛签署。文本用中文、韩文和日文写成，一式三份，三种文本具有同等效力。

签署人：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部长

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 长官

日本国文部科学省 副大臣